

새로운 비전 · 도약 위한 기념사업 추진

국민연금연구원, 30주년 맞아 누리집 · 연구과제 · 슬로건 공모… NPS 포럼 개최 등 국민과 소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연구원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연구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기념사업은 △30주년 기념 누리집(이하 누리집) 개설 △연구과제 및 슬로건 공모전 △제2회 NPS 포럼 등 세 가지로 구성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역사와 주요 연구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www.npri30.com)을 개설해 국민 누구나 연구성과를 쉽게 접하고, 국민연금의 발전 과정과 연구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내

용을 기획했다.

누리집은 △지나온 30년 △함께하는 국민연금 △나아갈 30년으로 구성돼 과거, 현재, 미래의 국민연금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연금연구원의 비전을 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연구과제 및 슬로건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

공모결과를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명씩을 선정해 4월 중 누리집에서 발표하고, 5월 중 제2회 NPS 포럼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월 중순에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연금제도 확립을 위한 제2회 NPS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연금개혁 이슈를 되짚어보며 향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일간 진행되는 포럼은 10주년을 맞이한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전문학회 컨퍼런스(3

회), 전·현직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연금제도 정책 간담회 등이 이어진다.

한편 국민연금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표창식도 진행한다.

한정립 국민연금연구원장은 "30주년을 계기로 삼아 연구원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지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연구를 계속 수행해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상의는 여성경제인 협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너지 효과 극대화, 지역 경제 발전’

전주상의,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와 임원단 간담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6일 전주 이종본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소정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전주상의 회장단과 소정미 지회장을 비롯한 여경협 임원단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 논의 △전북 기업들의 홍보와 판로 확대 지원 등

등이다. 소정미 지회장은 "여성 기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태 회장은 "전북 경제

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여성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여성 기업인들의 창의성과 혁신이 전북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전주상공회의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북의 경제 발전에 시너지를 발휘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0월 세계한인비즈니스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 확대에 힘쓰고 있다.

/김옥기 기자

환경청, 해빙기 비점오염원

하천 유입방지 지도·점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하천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해빙기를 맞아 이달 7일부터 4월까지 관내 비점오염원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에 퇴적된 먼지, 제설제, 유류 등 고농도 비점오염물질이 하천 등에 유입되어 상수원오염이나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장, 신규 설치 및 최근 3년 이내 미점검 사업장, 미신고 의심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현지 확인 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은 부지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준수, 관련대장 작성 및 구비여부, 변경신고 등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불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종운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비점오염원은 배출원이 불특정하고 대응이 어려운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유역 수질에 92%이상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이 적절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가상융합산업 발전 MOU 체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메타버스·가상융합 관련 기술·전문 인력 양성·기업 육성 등 협력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지난 7일 진흥원 세미나실에서 '지역 가상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메타버스 및 가상융합산업의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양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및 가상융합 관련 기술 및 인프라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 추진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육성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 기반 지원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의 산업 네트워크가 결합돼 지역 가상융합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메타버스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도 가상융합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지난 2021년 9월 기존 한국코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가 통합돼 창립한 메타버스 산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로, 협회 소속 기업 155개사와 메타

버스얼라이언스 멤버사 1107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017년 전북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시작해 전북VR·AR거점지원센터와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로 성장하는 지역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현재까지 약 50개사 지원, 전문인력 680명 배출 등 지역 가상융합산업 성장을 지원해왔다.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가상융합산업과 메타버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익산군 산축협 '2024년 계통사료 챔피언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익산군 산축협(조합장 심재집)이 지난 5일 농협중앙회에서 개최한 3월 정례대회에서 '2024년 계통사료 챔피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계통사료 이용률 100% 축협으로서 5만톤을 달성했으며, 그룹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평가항목에서 사료 취급량, 성장률 및 취급률(점유율) 등 평가

의 사기진작, 사업추진 동기부여, 우수조합 시제전파를 통한 계통이용률 확대에 그 목적이 있다.

익산군산축협은 2024년 연도말 기준 계통사료 이용률 100% 축협으로서 5만톤을 달성했으며, 그룹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평가항목에서 사료 취급량, 성장률 및 취급률(점유율) 등 평가

에서 최고 배점을 받아 계통사료 챔피언상을 수상하게 됐다.

심재집 조합장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축산물 수입 개방과 한우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산업인 축산업을 지키고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신 임직원분들과 이 영광을 함께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금융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7일 진안군청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진안군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42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전북은행 전상의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특별 출연하고, 총 42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10일부터 상담접수를 시작하는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운전자금 최대 1억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금융으로 해소를 위해 약 55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1,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 중이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